

순천 '정원의 도시' 마스터플랜 최종보고회 보니

걸어서 5분이면 정원과 만나는 행복도시



동문 가든샵



정원산업 아로마샵



서문 아로마샵

순천시가 미래지향적인 '정원의 도시' 청사진을 마련했다. 순천시는 최근 소회의실에서 '정원의 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최종 용역에서는 2045년 '정원의 도시' 순천의 미래 모습은 걸어서 5분이면 정원과 만나는 행복도시, 시민이 함께 가꾸는 국내 최대의 정원산업도시, 세계적 습지식물원을 보유한 도시, 머무르고 싶은 미래 정원 유산을 보유한 역사도시 비전이 제시됐다. 정원박람회 이후 달라진 순천의 위상과 새로운 도시 비전을 설정한 순천시 '정원의 도시' 마스터플랜 내용에 대해 살펴봤다.

◇2045년 목표 '정원의 도시' 추구= '정원의 도시' 순천 마스터플랜 실현을 위한 10대 역점 과제로 ▲습지 식물원 사업 ▲정원지원센터 건립 ▲정원문화의 확산과 관리를 위한 순천 정원협회 설립 ▲그린 정원회랑(코넥트) 시범 사업(철길을 걷는 정원, 그린 브릿지 등) ▲시범정원(공공정원 쇼케이스) ▲한마음·한 숲 정원 가꾸기 ▲동천 비치 조성사업 ▲생애 주기를 고려한 시민정원사 양성 ▲시민정원 등록제 등이 제안됐다.

습지식물원·정원지원센터 등 2045년까지 10대 과제 추진 도심공간 '그린가든 회랑' 연결 호수공원 일대 오픈가든 거리로 세계적 생태도시 만들기 박차

'정원의 도시' 공간 조성 방안으로 '역사문화 정원지역'은 순천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복원하고 관광자원화를 위한 해자 불길정원을 조성하고, 봉화산과 조례호수공원을 조성하고, 봉화산과 조례호수공원지역은 '오픈가든 테라스 거리' 등 정원문화 핵심 구역화한다.

또한 '순천만 정원지역'은 순천만정원과 조성중인 저류지 공원의 연결성을 확보해 정원과 주거문화의 핵심 거점화한다.

'순천만자연생태공원 지역'은 레인과든과 빗물수로 주차장 등 생태정원 핵심 구역화한다. '그린가든 회랑'은 도심 공간을 생태 축(軸)과 보행 축으로 연결하고 도시 전역으로 정원을 확장해 일상생활 공간에 정원문화를 정착시킨다.

'블루가든 회랑'은 동천비치, 제방 야시장 등 순천만과 순천만정원 관광객을

■순천 '정원의 도시' 마스터 플랜



도심으로 유입시키는 정원을 조성하고, '오픈가든 벨트'는 순천만자연생태공원에서부터 순천대 사이 남북방향의 도로(10km)를 중심으로 중소규모 정원을 집중 조성·연계할 계획이다.

◇시민이 만들어 가는 정원문화 도시=이런 마스터플랜에서는 정원산업 생태

계 구축을 위해 전체적으로 정원소재 및 용품 생산, 유통, 연구, 벤처를 통한 정원 관광 육성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정원수 생산, 생산조합 결성, 계약재배, 품질인증제, 정원수 발굴 및 시범정원 조성 등 안정적인 생산체계 도입 ▲정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유통중심·창의산업 지원 ▲'순천 습지식물원' 조성을 통한 연구거점 마련, 철쭉 품종과 재배기술 연구, 국내외 습지관련 식물 수집 연구, 부가가치 높은 정원수 발굴과 육종, 한방부터 제품 연구 ▲MICE산업 유치, 정원이 조성된 상점, 오픈가든 투어, 경관농업 등을 통해 관광객들이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정원관광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조충훈 시장은 "순천만정원 국가정원 1호 지정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정원의 도시' 순천의 미래 청사진을 마련하게 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시민의 참여와 실천을 중심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순천형 정원문화를 만들어 나간다면 정원문화와 정원산업의 롤 모델로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정원의 도시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순천=박선천기자 psc@

순천제일대 '화동이 봉사대' 화재 취약 40가구 안전점검

순천제일대학교 소방방재과 재학생들로 구성된 화동이 봉사대(지도교수 하현우)는 최근 순천소방서와 공동으로 화재에 취약한 서면 저민마을과 죽청마을 40가구를 대상으로 봉사활동 등을 펼쳤다.



이번 봉사활동은 화재예방·진압교육, 소화기·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마을 주변 쓰레기 수거와 대청소 위주로 실시됐다.

'화동이 봉사대'는 전공과 자원봉사를 결합해 각종 시·도 행사 인력지원을 비롯해 산불화재 예방 캠페인, 화재 취약계층 소방시설 안전점검·설치 등 봉사활동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한편 순천제일대 '화동이 봉사대'는 지난 2011년 제41주년 소방의 날 시상식에서 소방방재청장(단체상)을 수상했으며, 올해 (사)전남도 자원봉사센터 주관의 대학생 자원봉사 활동 프로그램 공모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순천교도소 교정협의회, 수행자 자녀에 500만원 장학금

수상금 전액 기부

순천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안운봉)는 최근 '교정대상 봉사상' 수상금(500만원)을 전액 기부, 불우 수행자 자녀 10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선정된 학생들은 한부모, 조손가정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실하게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중·고 대학생 자녀들이다.

이번 행사에서 자녀를 대신하여 장학증서를 받은 한 수행자는 "날기만 했지 못해서 해준 게 없어 항상 죄책감에 시달렸는데, 순천교도소가 부모 역할을 대신해주 정말 감사하다"며 눈시울을

젖혔다. 안운봉 회장은 "앞으로도 부모의 수형생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행자 자녀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우리 사회의 큰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세일골

"수형자 재범 방지 위한 교정행정 펼칠 것"

김영준 순천교도소장



"엄정한 법 집행과 수행자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부임한 김영준(58) 순천교도소 소장은 "법과 원칙에 입각한 복무 자세와 엄정한 수용질서 확립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교정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또 "법과 정의, 원칙을 중시하면서도 직원들과 격의없이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광주 출신인 김 소장은 지난 1989년 교정 간부로 입문한 뒤 수원구치소 부소장, 광주 지방교정청 총무과장·보안과장, 해남 교도소장 등을 역임했다. 가족으로는 부인 박점남씨와 사이에 3녀를 두고 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호남예술제

호남예술제 60주년 기념전시회



전국 예술꿈나무들의 큰잔치, 전통의 종합예술대전인 호남예술제 60주년을 맞아 준비한 전시회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관람 바랍니다.

최근 10여년간 호남예술제 미술·작문 부문 최고상 수상작 전시 호남예술제 출신, 작가, 심사위원 등 후원작가 작품 전시

2015. 8.13(목)~8.22(토) 오전10시 ~ 오후5시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1, 2전시실

주최 | 광주일보사, 아시아문화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